

# 광주교육감-유소년축구팀·학부모 소통 한마당

## 상급학교 팀 확대·훈련장 확보 유소년축구대회 제안에 "검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처음으로 13개 광주 초·중학교 유소년축구팀 전체 선수단과 학부모, 지도자와 직접 소통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교육감은 지난 4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유소년축구팀과 함께 하는 광주교육 소통한마당'을 열어 선수단을 격려하고, 학부모와 지도자로부터 유소년팀의 발전을 위한 제안과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소통 한마당에는 광주송정서FC, 월곡FC 등 초등 10개팀과 광주북성FC U15 등 중등 3개팀 등 선수단과 학부모, 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하남중앙초교 선수단 학부모는 "광주에 유일한 초등학교 여자 축구팀이 하

남중앙초교팀인데 이들이 졸업하면 상급 학교 축구팀에 진학할 방법이 없다"고 현 여자유소년팀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유소년 여자축구팀 뿐 아니라 초등축구팀도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초등팀은 9개인데 정작 중학팀은 3개, 고교는 1개 밖에 없어 어린 나이에 타지로 나가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초등팀 선수 학부모는 학교팀에서 전문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 초·중학교 3개팀은 교육청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축구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는 클럽은 학원 스포츠로 규정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황인성 광주북성FC U-15팀 감독은 "광주유소년 축구팀의 발전과 광주축구 전체 생태계 복원과 발전을 위해 교육당국에서 관심과 함께 훈련용품이라도 지원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4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유소년축구팀 선수단과 학부모, 지도자 등과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교육청 제공

다. 유소년축구팀 지도자와 학부모들은 △

여자축구팀 신설 △상급학교 진학 어려움 △훈련용품 등 최소 지원검토 △축구팀

운동장의 확보난 △스포츠 사교육비 부담 등을 거론했다.

이 교육감은 "축구협회와 지도자들이 제안한 광주교육감배 유소년축구대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미래 한국축구를 책임질 선수들이 광주 유소년축구팀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자체 운영이 가능한 종목을 우선해서 전문 스포츠클럽을 확대 운영한다는 게 교육청의 방침"이라며 "자생 가능한 전문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유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통한마당에는 정의환 광주축구협회 부회장, 이병권 사무국장 등 축구협회 임직원들도 참석해 교육청, 축구협회, 유소년축구팀 간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향후 광주시교육청 광주FC 구단 임원진과도 만나 유소년축구 활성화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김혜인 기자

## 전남교육청 "미래교육은 지역중심 교육 경쟁력 확대"

### '2024 전남교육 설명회' 개최 맞춤형·글로벌교육·생태계 구축 김교육감 "글로벌 교육 구체화"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새로운 미래교육 패러다임으로 지역 중심 교육 경쟁력을 키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글로벌 교육'을 제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일 전남교육청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4 전남교육 설명회'를 갖고 2024년 전남교육 기본 방향을 밝히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4년 전남교육은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참여·협력·현대의 교육공동체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등 기존 4대 교육지표를 수행하며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Global+Local) 교육'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3대 역점과제로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 △지역과 공

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글로벌교육'을 설정했다.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통합적 독서·토론·글쓰기를 내실화하고 학생주도성 키움 수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AI 활용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남교육과정 적용 역량 및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글로벌교육을 위한 다국어교육 활성화, 문화다양성 교육 내실화, 국제교류 확대, (가칭)전남국제직업고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기로 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미래사회 요구와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 교육의 경쟁력을 키우는 '글로벌 교육'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시대적 과제인 '전남교육 대전환'을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교육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장과 정책을 잇다'를 주제로 한 이날 설명회에는 학교급별 교(원)장 50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전남 교육정책과 역할 과제들이 현장에서 구체화 되고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정책 설명에 이어 좌장을 중심으로 김도교육감과 5명의 교(원)장이 '지역중심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실현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좌장을 맡은 김병인 강진교 교장은 "전남이 직면한 변화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는 교육에 있다는 것을 이번 논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교교육을 살리고 나아가 지역의 생존을 지켜내는 글로벌 교육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 교육을 위한 다국어 교육 자료 제작 계획 △공존교실 운영 내실화 방안 △진로·학습·진학상담 통합 관리 방안 등 2024년 주요 사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5일엔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중·서부권을 대상으로 '제2차 2024 전남교육 설명회'가 열렸다. 김혜인 기자

## 광주 소마고, 인공지능 프론티어 챌린지 2023 최우수상

### ATC팀 시교육감상·대표이사상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광주소마고) ATC팀(사진)이 최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주최 '인공지능 프론티어 챌린지 2023'(AI Frontier Challenge 2023)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5일 광주소마고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주관했다. 국내외 글로벌 AI 기업 9곳이

이번 대회에 후원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부터 시작돼 예선 서류심사와 본선 발표를 거쳐 10개 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광주소마고의 ATC팀(강영현, 김준, 김형욱)은 'AI를 활용한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서비스'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팀의 작품은 비용 부담으로 보안 담당자 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AI 기반의 네트워크 공격 방어 및 서버 상태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창의성과 실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TC팀은 최우수상 외 광주시교육감상, KT클라우드 대표이사상을 수상하며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또 지도교사 임성은 교사도 지도교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홍지 광주소마고 교장은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AI시대를 선도할 마이스터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